

SK 최정·최향 형제, 동반 홈런포로 팀 4연승 이끌다

동일팀 형제 타자 동일 투수 상대 홈런은 최초
롯데에 3-1 승리...올시즌 최단 시간 경기 기록

형제가 SK 와이번스의 연승을 책임졌다. SK는 13일 인천 SK행복드림구장에서 열린 2020 신한은행 쏘 KBO리그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3-1로 이겼다. SK의 3점은 모두 최정·최향 형제의 방망이에서 나왔다. 스타트를 끊은 이는 형 최정이었다. 최정은 0-1로 끌려가던 4회말 1사 1루에서 롯데 선발 박세웅의 2구째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역전 투런포로 연결했다. 5회에는 동생 최향이 화답했다. 최향이 솔로 홈런으로 팀에 3-1 리드를 안겼다. 이번에도 희생양은 박세웅이었다. 같은 팀 형제 타자들이 같은 경기에서 한 투수를 상대로 홈런포를 쏘아올린 것은 1982년 KBO리그 출범 후 처음이다.

형제 동반 홈런은 세 번째다. 정보 핀토스 양승환-양후승 형제가 1986년 7월31일 인천 롯데전에서 최초 동일팀 형제 홈런을 작성했다. 2015년 6월2일 LG 트윈스-NC 다이노스 경기에서는 상대팀으로 만난 LG 나성용과 NC 나성범 형제가 나란히 홈런을 때려낸 바 있다. 진기록에 투수들도 화답했다. SK 선발 핀토는 롯데 타선을 6이닝 동안 4피안타 1실점으로 틀어막았다. 김태훈-정영일-김세현이 1이닝씩을 책

입지면서 SK가 승리를 가져갔다. 9위 SK(36승1무71패)는 4연승을 달렸다. 핀토는 5승째(12패)를 수확했다. 7위 롯데(52승1무50패)는 5안타로 1점을 내는데 그치면서 2연패에 빠졌다. 선발 박세웅은 7이닝 4피안타 3실점으로 잘 던지기도 홈런 2방에 패전 투수가 됐다. 한편 SK-롯데전은 2시간4분 만에 끝나 올 시즌 최단 시간 경기로 기록됐다.

뉴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최정(왼쪽), 최향 형제. (사진=SK 와이번스 제공)

KIA 김선빈, '주루' 남았다...윌리엄스 감독 "다른 부분은 준비완료"

세 차례 허벅지 부상에 지난 6일부터 1군 복귀 대타 대기

"다음주 선발출전한다". 맷 윌리엄스 감독이 내야수 김선빈의 선발출전을 다음주로 못박았다. 대신 주루까지 최종점검을 마쳐야 한다. 세 차례 허벅지 부상을 당했던 김선빈은 지난 6일부터 1군에 복귀했다. 대신 선발출전하지 않고 벤치에서 대타로 대기하고 있다. 실제로 한 타석에 들어가 안타를 생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수비와 주루가 완

벽해질 때까지 시간을 더 주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10일 두산베어스와의 광주경기에 앞서 "김선빈이 다음 주부터는 선발출전한다. 매일 몸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내일은 베이스러닝을 체크한다. 이번 주까지는 대타로 대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좀 일찍 훈련을 시작하고 있다. 다른 부분은 준비가 됐다. 다리 상태가 확실해질 때까지 천천히 조정하

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점검인 베이스러닝을 문제 없이 소화한다면 출전 준비는 완료되는 셈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김선빈의 훈련을 둘러하며 점검을 하고 있다. 전날(9일)은 직접 공을 굴려주면서 수비를 함께 했다. 이날은 2루 수비훈련에 나선 김선빈의 1루 송구를 직접 받아주며 몸놀림을 면밀히 관찰했다.

서선욱 기자



독일로 무대 옮긴 황희찬, 데뷔전 '골맛'

선발 출전해 1골1도움

독일로 무대를 옮긴 황희찬(라이프치히)의 출발이 좋다. 황희찬이 데뷔전부터 골맛을 봤다. 황희찬은 12일 밤 독일 뉘른베르크 막스 모르코 슈타디온에서 열린 뉘른베르크와의 2020-2021 독일축구협회(DFB) 포칼 1라운드에 선발 출전, 1골1도움을 기록했다. 세 골 중 두 골에 참여한 황희찬의 활약 덕분에 라이프치히는 3-0 승리를 거두고 2라운드에 진출했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에서 활약하던 황희찬은 여름 이적시장을 통해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 라이프치히로 이적했다. 계약 기간은 2025년 6월까지다.



데뷔전 골맛 후 기념 촬영에 임한 황희찬. (사진=라이프치히 트위터)

황희찬은 첫 경기부터 날카로운 움직임 보이며 올리안 나겔스만(독일) 감독의 눈도장을 제대로 찍었다.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상대 수비수들을 쉴 새 없이 괴롭혔다. 첫 공격 포인트는 도움이었다. 1-0으로 앞선 후반 22분 황희찬은 오른쪽 측면을 뚫어낸 뒤 중앙으로 공을 전달했다.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유수

프 포울센이 정확한 슛으로 골망을 흔들면서 황희찬의 도움이 기록됐다. 경기 막판에는 직접 득점에 가담했다. 후반 45분 경합 중 흐른 공을 침착하게 왼발로 밀어넣었다. 데뷔전부터 골과 도움으로 연착륙을 예고한 황희찬은 20일 마인츠와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두 경기 연속 골에 도전한다.

오사카, US오픈 테니스 우승...세 번째 메이저 패권

"우승까지 생각한 것 아냐...단지 경쟁 하겠다는 생각"



오사카 나옴이(일본·9위)가 생애 세 번째 메이저대회 우승컵을 품고 있다.

오사카는 13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플러싱 메도의 빌리진 킹 내셔널 테니스 센터에서 열린 US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빅토리아 아자렌카(벨라루스·27위)에게 2-1(1-6-6-3-6-3) 역전승을 거뒀다. 2년 전 이 대회에서 처음으로 메이저대회 정상과 연을 맺은 오사카는 2년 만에 US오픈 왕좌로 복귀했다. 지난해 호주오픈을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매해 한 차례씩 메이저대회를 정복한 오사카는 통산 메이저 우승을 3회로 늘렸다. 오사카는 1세트 1-6으로 맥없이 빼앗겼다. 경기가 뜻대로 흐르지 않자 라켓을 바닥에 팽개치는 등 심리적으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오사카는 2세트부터 힘을 냈다. 1세트에서 44%(7/16)에 불과했던 첫 서브 성공률이 2세트 들어 65%(11/17)까지 오르면서 페이스

를 되찾았다. 0-2로 끌려가던 2세트를 6-3으로 정리한 오사카는 3세트에서도 아자렌카의 추격을 3점으로 막고 승리를 확정했다. 오사카는 우승 후 코트에 누운 채 하늘을 바라보며 기쁨을 누렸다. 오사카는 "우승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경쟁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다"면서 "어쨌든 트로피를 들게 됐다"고 활짝 웃었다. 오사카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의미로 7장의 검은색 마스크를 준비, 경기마다 쓰고 나왔다. 기대대로 결승에 올라 7경기를 치르면서 7장을 모두 소진했다. 이번 우승으로 오사카는 세계랭킹 3위에 재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자렌카는 세 번째 US오픈 결승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아자렌카는 "지는 것은 괴롭다"며 쓸쓸해 했다.

김한별, KPGA 신한동해오픈 접수



3일 인천 청라 베어즈 베스트 청라 골프클럽에서 열린 제36회 신한동해오픈 파이널라운드, 우승을 차지한 김한별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신한금융그룹 제공)

최종합계 14언더와 270타를 기록한 김한별은 이태훈(30)의 추격을 2타 차로 뿌리치고 트로피에 입을 맞췄다. 헤지스골프 KPGA오픈 with 일동레이크프롭클럽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우승으로 김한별은 시즌 2승째를 챙겼다. KPGA 투어에서 연속 우승자가 나온 것은 2014년 '바이네르-파인리즈 오픈'과 'KJ CHOI INVITATIONAL presented by CJ'를 제패한 박상현(37·동아제약) 이후 5년 10개월 만이다. 올 시즌 첫 다승자 등극과 함께 우승 상금 2억6000만원을 보낸 김한별은 제네시스 포인트와 제네시스 상급랭킹 1위로 올라섰다. 김한별은 "첫 우승을 했을 때보다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3라운드 후반부터는 티샷도 안정감을 잃었다"면서 "오늘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버디가 나와 기분이 좋아졌다. 까다로운 코스였지만 쇼트게임이 잘 돼 우승까지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웃었다. KPGA 투어 2년차인 김한별은 벌써 2승을 챙기면서 올해 최고 스타로 급부상했다.



STL 감독 "김광현, 보고 내용 좋아"

밀워키전 복귀 전망...신장 경색 진단으로 부상자 명단 올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돌아온다. 13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지역 매체 벨빌 뉴스의 제프 존스 기사는 "김광현이 확실하게 15일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선발 등판할 것 같다"고 전했다. 부상자 명단에 오른 김광현의 복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던 것이다.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이날 불행 피칭을 한 김광현에 대해 "정말 좋았다"며 "모든 보고 내용이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세인트루이스는 15일 밀워키와 더블헤더를 소화한다. 김광현이 2차전을 책임질 가능성이 크다. 올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김광현은 5경기에서 21%이닝을 던지며 2승 무패 평균자책점 0.83으로 호투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시카고 컵스전 선발 등판을 앞두고 급속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신장 경색 진단을 받았다. 이후 부상자 명단에 등재된 후 건강을 되찾으며 복귀를 앞두고 있다.

KIA, NC 2연전 싹쓸이

선발 브룩스, 6⅓이닝 2실점 호투...박준표도 첫 세이브

KIA 타이거즈가 창원 2연전을 싹쓸이했다. KIA는 13일 창원NC파크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와의 경기에서 선발 애런 브룩스의 호투와 최원준의 결승타를 앞세워 4대3 진압승을 거뒀다. KIA는 2연전을 모두 이기고, 56승47패를 기록했다. KIA 브룩스는 선발 등판해 6⅓이닝 6안타 4사구 3개(2볼넷) 3탈삼진 2실점으로 호투했다. 전상현이 빠진 불펜진도 1점만을 내주며 활약했다. 박준표는 1이닝 무실점으로 통산 첫 세이브를 따냈다. 유민상과 최원준이 각각 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NC가 선취점을 뽑았다. 1회말 선두타자 박민우가 좌전 안타로 출루해 2루를 출했다. 1사 후 나성범이 좌전 적시타를 쳐 1-0으로 앞섰다. KIA는 3회초 1사 후 박찬호의 우중간 안타로 기회를 잡았다. 최원준의 2루수 땅볼이 실책이 되면서 1,2루 기회. 프레스턴 터커가 중전 적시타를 쳐 1-1 동점

을 만들었다. KIA가 계속된 기회에서 득점에 실패하자, NC가 리드를 되찾았다. 3회말 박민우가 중전 안타, 이명기가 사구로 출루했다. 대타 김성욱의 희생 번트로 1사 2,3루. 양의지가 2루수 앞 땅볼을 쳐 2-1이 됐다. 그러나 KIA가 4회초 유민상과 김태진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맞이했다. 한승택의 희생 번트로 1사 2,3루. 홍성표가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쳐 3-2로 리드했다. 점전이 계속됐다. KIA는 8회초 1사 후 나지완의 좌익수 왼쪽 2루타로 찬스를 잡았다. 유민상이 우익수 오른쪽 적시타를 때려 1점을 달아냈다. NC도 8회말 이원재와 박성민이 연속 안타를 쳤다. 노진혁이 희생 번트를 성공시켰다. 알테어의 사구로 만루 기회. 권희동이 좌익수 희생 플라이를 쳐 3-4로 추격했다. KIA는 9회 부상에서 돌아온 박준표를 투입해 1점의 리드를 지켰다. 가가스로 승리했다.